ppp to fff

보이지 않는 소리는 회화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 머물 수 있을까. 음악은 흔히 소리의 예술이라 불리지만 실제로 음악이 성립하는 과정은 언제나 청각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강약을 지시하는 기호, 곡의 분위기를 지정하는 나타냄말과 보조어, 점차 고조되거나 사그라드는 음표의 흐름은 소리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눈앞에 놓인다. 우리는 악보를 통해 아직 울리지 않은 악음을 미리 보고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예원은 소리가 되기 직전의 상태, 다시 말해 비가청의 조건들에 주목한다. 오랜 시간 여러 악기를 다뤄 온 그에게 음악은 재현의 대상이라기보다 화면을 조직하기 위한 일종의 구조적 문법에 가깝다. 《ppp to fff》는 아주 여린 연주에서부터 극도로 증폭된 연주까지가 허용되는 범위를 가리킨다. 이는 동시에 회화가 다룰 수 있는 음파의 최소와 최대를 가늠해 보는 좌표이기도 하다. 전시는 음의 강도, 박자, 정서와 같은 맥락들이 시각적으로 번역되고 조율되는 과정을 살핀다.

위와 같은 주제 의식은 개별 작업에서 보다 구체적인 조형 언어로 드러난다. 이를테면 음악적 지시어들은 보편의 신호 체계를 벗어난 궤적이 되어 비정형의 조음이 작동하는 원리를 표상한다. 요컨대 정형화된 악기나 악보가 사라진 이후에도 음악이 유효한지, 회화가 일종의 연주를 유도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 가령 <cresc.>는 동일한 이미지를 확대해 비율을 달리한 뒤 연속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셈과 여림을 암시한다. 점점 커지는 소리를 촉매하는 크레셴도는 화면 속에서 리듬이 축적되고 이동하는 방식을 투영한 다이내믹이 된다. 또한 <8vb to 8va>는 한 옥타브 아래와 위를 의미하는 기보법을 제목 삼아 낮은 음역에서 높은 음역으로 움직이는 범위를 압축한다. 왼편의 폭발하는 도상, 오른편의 연료통과 피콜로[1]는 단일한 장면 안에 놓이는데, 배기관이 에너지를 응집시키는 장치라면 연기와 피콜로는 분출과 상승의 감응을 호출한다. 더구나 특정 악기가 지닌 본연의 음고는 프레임 내부에 작용하는 긴장과 방향성을 규정하는 요소로 기능하며, 음이 전이되는 과정을 물리적 오브제로 치환한다.

작가의 작업은 과거 구체 음악(Musique Concrète)이 제안했던 방법론과도 느슨하게 맞닿아 있다. 구체 음악은 제이 차 세계 대전 후에 생긴 전위 음악의 하나로, 동물의 울음소리나 도시의 소음 등 자연에 그대로 존재하는 소리를 녹음하고 변형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하는 양식을 일컫는다. 모든 소리는 더 이상 음악을 방해하는 노이즈가 아니라 특정 감각을 환기하는 유용한 소리로 치부되었고, 청취의 태도에 따라 음악적인 소리와 잡음의 경계가 끊임없이 재조정되었다. 서예원의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굉음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연히 공군 퍼레이드에서 전투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열음을 마주한 어느 날, 그는 사회적으로 허용된 굉음이 일상의 축제처럼 소비되는 순간에 강한 이질감을 느꼈다. 짐작건대 낯선 군사적 파장은 그간 귀로 듣고 눈으로 보았던 대상과 상이한 여운을 남겼을 것이다. 이제 비행기, 항공모함, 군대, 낙하산, 불꽃, 연기 등은 악기 또는 연주자의 손과 병치되며, 무대라는 공간 바깥에 존재하는 청각적 경험을 해체하고 소리의 사건성을 드러낸다. 그의 그림에서 도처에 널린 세계의 공명은 음악적으로 재편되고, 음악 또한 세계의 울림으로 섞여 들어간다.

작곡가에서 연주자로, 청취자로 이어지는 구도에서 연주자와 청취자를 잇는 것은 소리지만 작곡가와 연주자를 잇는 것은 악보다. 악보를 기준으로 본다면 기보하는 이에게 중요한 일은 자신이 상상하는 소리를 최대한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고 악보를 읽어 내는 이에게 중요한 일은 그것에 적힌 기호를 소리로 되살리는 것일 테다.[2] 한편, 작가의 화면은 청사진일 뿐, 관객의 제가끔 다른 시선과 동선으로 인해 선형적으로 연주해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인다. 이는 완결된 서사를 유보하고 독해와 수행을 요구하는 지면으로 간주된다. 듣는 대신 바라보는 음악, 실연되는 대신 해석되는 소리를 통해 회화는 무한한 사고를 경유하는 제멋대로의 악보가 된다. 그러니 박자표와 마디선이 지워진 틀 바깥에서 유영하는 음표들을 그러모아 비좁은 세계의 틈을 넓혀 볼 수 있을 것만 같다.

이유진 (디스위켄드룸 큐레이터)

---

[1] 피콜로는 맑고 청아한 금속성 음색을 내는 가장 작은 목관악기로서, 바이올린과 같은 높은음자리표를 쓰고, 목관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을 내는 악기이다. 김달성, 박관우 (1988),『악기론』, 세광음악출판사, p. 12.
[2] 신예슬 (2019),『음악의 사물들: 악보, 자동 악기, 음반』, 워크룸 프레스, p. 16.